'孫의 귀환' 급변하는 민주당 역학구도

총선 희망 보인다… 너도 나도 '孫잡자'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

비주류 쇄신연대 해체 검토

광주·전남지역 의원들도

손대표와 거리좁히기 나서

4·27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4·27 재보선에서'분당 대첩'을 이룬 손학규 대표의 귀환으로 민주당의 역학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손 대표의 정체성 등을 문제 삼았었던 비주류 측에서도 '손비어천가'에 가세,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실제로 이날 아침 분당에서의 2시간여의 당선 사례를 마친 뒤, 방문한 현충원에는 대권 경쟁자인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현역 의원도 30여명이나 나왔다.

의원총회 분위기는 더욱 뜨거웠다. 손 대표가 회의장에 들어서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로 맞이했다.

꽃다발을 두 손에 든 채 손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려는 순간 촬영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자리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선 인사에 나선 손 대표는 "지금의 승리에 도취되거나 자만하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보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초심을 강조했다.

손 대표 측근그룹은 선거 뒤풀이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더욱 낮은 자세로 가자"는 겸손 모드를 유지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역학구도는 손 대표를 정점으로 재정비되고 있다.

당장,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는 조만간 모임을 갖고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해체'마저 거론하고 있다.

쇄신연대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모임 해체는 손 대표 독주체제로 당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류의 한 재선 의원은 "손 대표가 싫다고 해도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줄서기와 도장찍기가 곧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것이 권력의 속성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분당 대첩'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손학규 계보는 급속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2년간의 춘천 칩거를 마치고 당권 도전에 나설 때만 해도 10여명에 불과했던 손학규 계는 이제 족히 20명은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자천타천 손학규 계보까지 합친다면 30여명이 넘어선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왔던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도 손 대표 측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실패와 맞물려 손 대표의 한 자릿수 지지율까지 반등세를 탄다면 민주당 내부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손 대표의 확고한 리더십 확보는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및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권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일부 주자들이 당권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기존의 당권 주자들은 손 대표와의 연대 전선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그걸 알면 선거에 깨졌겠습니까?!

순천시민의 '위대한 선택'에 경의

김효석 의원 자성의 글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28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자기 성찰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노동당 후보를 야권단일 주자로 결정한 점에 대해 내심 섭섭함과 거부감을 느꼈었다"며 "하지만 순천시민은 이를 극복하고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창출의 길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남 김해 을에서는 야권연대 후보가 아닌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거물급 정치인이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순천시민은 그 보다 더 큰 그림을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주목받는 손학규 사람들

이인영 최고 선거 총괄… 광주 출신 이남재 '孫心' 역할

박양수 전의원 호남향우회 결집·김영근 '손의 그림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극적인 승리를 하면서 그 조역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당내에선 이번 선거의 최고 수훈갑으로 이인영 최고위원과 이남재 당대표 비서실 차장을 꼽는다.

이 최고위원은 분당 선거의 총책임자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당내 486그룹의 대표주자인 이 최고위원은 스스로 자원봉사단장이라고 칭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 내부 이견 등을 조율해냈다.

이 차장은 손 대표를 서강대 교수 시절부터 모셔온 최측근. 손 대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 일을 마다 않고 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일정 등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는 손 대표의 복심으로 활약했다.

이 차장과 함께 측근 2인방으로 꼽히는 강훈식 정무특보는 이번 선거에서 전략을 맡아 승리의 일등 공신이 됐다.

또 김윤 민주당 서초지역위원장, 정치컨설턴트인 김윤재 변호사, 여론조사전문가인 김헌태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이번 선거 승리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

뒤늦게 합류한 김 변호사와 김 전 소장은 이 부위원장과 함께 '조용한 선거' 기조 등 선거전략을 짠 주인공들이다.

영남 민주개혁진영의 대부격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좌장겸 군기반장 역할을 했으며, 진도 출신의 박양수 전 의원은 조직을 총괄하며 호남향우회 결집을에 큰 공을 세웠다.

영암 출신의 김영근 부대변인은 손 대표가 직접 분당을 선거에 차출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 정동영계로 분류되지만 현장 담당을 맡아 그림자 수행을 하며 특유의 성실함을 과시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있으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분당에 와서 활동하며 호남향우회는 물론 시민사회계 및 각종 노조의 도움을 받아낸 인사들도 있다.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을 비롯 박병진·윤명국·강신만씨 등도 이번 손 대표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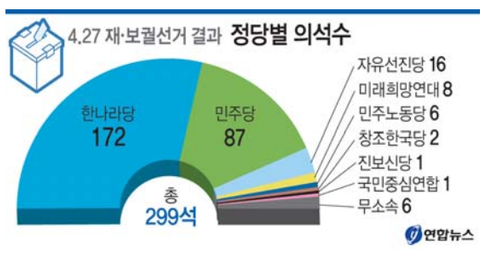
이 외에도 이용섭 의원의 박영웅 보좌관, 조영택 의원의 구승희 보좌관, 김재균 의원의 김정곤·장석원 보좌관, 김영진 의원의 김행석 보좌관 등이 선거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선거 승리의 공신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권 연대' 화두… 정치권 지각변동 오나

순천 민노 김선동 당선 '학습효과'

내년 총선 단일화 목소리 커질 듯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내년 4월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당선자의 승리로 광주·전남에서 민노당 소속 첫 국회의원 탄생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내년 야권연대의 틀을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권 내에서는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후보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에서의 야권 단일후보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 맏형격인 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통큰 양보' '통큰 결단'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천 보선에서 김선동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데서 볼 수 있듯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광주·전남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는 소수야당 후보의 승리가 무난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벌써 광주·전남 국회의원 일부 지역구는 야권 단일후보지역으로 거명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남구(민노당 곽정숙)와 서구을(민노당 오병윤, 국민참여당 이병완), 북구 을(민노당 윤민호) 등 3곳에서, 전남은 순천을 포함해 2~3곳 등에서 각각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인사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야권연대에 대한 여망을 확인했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득권이 있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어 야권 단일후보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실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대한 야권연대를 놓고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고, 지역 당원들이 중앙당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야권연대가 성사되려면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물갈이와 일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연대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서 야권단일화에 대한 정치적 명분도 있겠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등 소수야당은 야권연대라는 대의명분을 통해 민주당에 양보만을 요구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는 등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①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②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③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회원 가입안내

택1- 100% 보증금제

구분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적용대상	이용횟수	골프서비스	지원기준	숙박서비스
프라임	3,800만원	전 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年 22회	주중12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5평형대 연 15박
플래티움	6,400만원			기 명-1인 무기명-1인	年 34회	주중24회 / 주말10회 월4회(주중3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7평형대 연 15박

택2- 보증금+입회금제

구분	가입금액	보증금	입회금	적용대상	이용횟수	골프서비스	지원기준	숙박서비스
이글	2,750만원	2,200만원	550만원	기 명-1인 지정인-1인	年 22회	주중12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5평형대 연 15박
알바트로스	3,770만원	3,000만원	770만원	기 명-1인 무기명-1인	年 30회	주중20회 / 주말10회 월3회(주중2회+주말1회) 예약 서비스	주중/주말 회원혜택	27평형대 연 15박

기타 회원혜택

-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제주 골프투어시 제주 골프텔 연 15박 회원대우)
-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지상경비 회원대우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광주·전남 골프장의 원활한 예약서비스를 위해 50명 한정 모집)
- 계좌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상담문의 TEL. 062_371_1800(代)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